

《三國演義》에 나오는 활에 관하여^{*}

洪潤基^{**}

<목 차>

1. 서론
2. 활의 분류와 종류
 - 2.1 활(弓)
 - 2.2 군사 보병용 활
 - 2.3 군사 기병용 활
 - 2.4 의장용 및 권력 상징용 활
 - 2.5 그 밖의 활
 - 2.6 그밖에
 - 2.6.1 활 점
 - 2.6.2 활로 오해할 수 있는 어휘
3. 결론

1. 서론

본고는 소설 《三國演義》의 활과 관련된 묘사를 형상적으로·역사적으로·과학적으로·군사 기술적으로·문화적으로·수리적으로,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삼국연의》에 나오는 여러 종류의 활들을 추출하여 분류하였다. 둘째, 《삼국연의》 안에서의 활에 관한 묘사를 살펴보았다. 셋째, 《삼국연의》에 나오는 활들이, 역사서인 《後漢書》와 《三國志》에 근거하는 지를

www.kci.go.kr

^{*} 이 연구는 2012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단국대 중문과 부교수.

살펴보았다. 넷째, 《삼국연의》에 나오는 활들의 병기학적·과학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다섯째, 《삼국연의》의 활을 사용하는 전술 묘사를 간단히 살펴 보았다. 여섯째, 《삼국연의》에 나오는 활의 문화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일곱째, 《삼국연의》에 나오는 활들의 張力과 사정거리를 역사 기록과 考古文物資料에 근거하여 계산해 내었고, 이를 현대의 도량형 단위로 제시하였다. 본고의 연구대상이 되는 텍스트의 범위는 毛宗崗本 《삼국연의》의 소설 原文과 毛宗崗의 回評과 短評에 나오는 활에 관한 어휘 모두를 포함한다. 연구 대상은 활에 국한하며, 弩와 화살 등은 제외하였다. 弩와 화살 등에 관해서는 다음에 연구 발표하기로 한다.

2. 활의 분류와 종류

毛宗崗本 《삼국연의》의 원문과 毛宗崗의 回評과 短評에 나오는 활은 다섯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활·돌째, 군사 보병용 활·셋째, 군사 기병용 활·넷째, 의장용 및 권력 상징용 활·다섯째, 그 밖의 활이다. 모두 20종류의 활이 나온다.

(1) 활: ①【궁(弓)].

(2) 군사 보병용 활: ②【보궁(步弓)], ③【강궁(强弓)], ④【경궁(硬弓)], ⑤【양궁(良弓)], ⑥【2석력지궁(二石力之弓)] 또는 【2석지궁(二石之弓)], ⑦【3석지궁(三石之弓)], ⑧【철태궁(鐵胎弓)], ⑨【양석철태궁(兩石鐵胎弓)], ⑩【염호(槩弧)].

(3) 군사 기병용 활: ⑪【마궁(馬弓)], ⑫【각궁(角弓)], ⑬【경궁(輕弓)].

(4) 의장용 및 권력 상징용 활: ⑭【조궁(雕弓)], ⑮【보조궁(寶雕弓)], ⑯【천자보조궁(天子寶雕弓)], ⑰【동궁(彤弓)], ⑱【노궁(旅弓)].

(5) 그 밖의 활: ⑲【작화궁(鵲畫弓)], ⑳【와궁(窩弓)].

그밖에도 활이 아니지만 활(弓)로 오해할 수 있는 어휘 2종이 있다. 【단궁(檀弓)】·【무호(鏐弧)】.

2.1 활(弓)

2.1.1 【활(弓)】

① 《삼국연의》에서의 묘사

활은 毛宗崗의 평어를 포함하여 모두 196번 나온다. 자주 나오는 병기 가운데 하나이다. 《삼국연의》에 나오는 활은 재료에 따라·張力에 따라·용도에 따라 이름이 붙여졌다.

② 정의

탄력이 있는 기다란 나무의 양 끝을 질긴 줄의 양 끝으로 팽팽하게 당겨 묶어 화살이나 彈丸을 매겨서 힘껏 줄을 당겼다가 갑자기 손을 놓아, 활의 몸체에 축적된 탄력으로 목표물을 쏘아 맞히는 기계이다.

③ 활의 재료 및 제작방법

春秋時期(B.C770年-B.C476年)의 저작인 《考工記·弓人》에서는 뼈대(幹)·뿔(角)·힘줄(筋)·아교(膠)·실(絲)·칠(漆)의 6가지 재료(六材)를 가지고 활을 만든다고 하였다. 漢代의 활은 일반적으로 대나무나 나무를 얇게 잘라 갈마들며 여러 겹으로 붙이고, 활의 안쪽에는 쇠뿔을 붙이고 바깥쪽에는 쇠심줄을 붙인 다음, 이를 다시 실로 감고 그 위에 칠을 해서 만든 복합궁(複合弓)이었다.

④ 활 몸체 각 부분의 이름

활 몸체 각 부분의 이름에 관하여는 後漢 劉熙가 지은 《釋名·釋兵》에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釋名·釋兵》: “활은 둥그레 하다는 뜻이다. 활을 당기면 하늘처럼 둥그레 해

지기 때문이다. 꼬트머리를 소(簫)라고 부르는데, 소(簫)는 활의 맨 끝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그것을 활고자(弣)라고도 일컫는데, 동물의 뼈로 만들며, 활고자를 매끄럽게 하여 활고자를 만든다. 가운데를 줍통(拊)이라고 부르는데, 줍통이라는 것은 쥐는 것이다. 사람이 손으로 잡아 쥐는 것이다. 소(簫)와 줍통(拊) 사이를 연(淵)이라고 부른다. 연(淵)은 구부려진다는 뜻으로, 張力을 받아 구부려지는 것을 말한다.¹⁾

⑤ 활시위 재료

漢代 활의 시위는 동물의 가죽이나 실이나 줄을 꼬아서 만들었다.

2.2 군사 보병용 활

2.2.1 【보궁(步弓)】

① 《삼국연의》의 묘사

5회: 劉備가 대답하였다. “關羽는 馬弓手이고, 張飛는 步弓手입니다.”²⁾

② 정의

《漢語大詞典》과 《中國古代器物大詞典-兵器·形具》³⁾에 步弓에 대한 풀이는 없다. 보병이 쓰는 활이다. 보병으로서 활을 쏘는 射手를 步弓手라고 부른다.

③ 《후한서》와 《삼국지》의 기록

보궁에 관한 기록은 없다. 따라서 장비가 보궁수였다는 기록도 없다.

④ 보궁의 특징

明 朱國禎의 《湧幢小品·兵器》에 “활에는 두 등급이 있는데, 하나는 마궁이고, 하나는 보궁이다.”⁴⁾라고 하였다. 활의 등급을 馬弓과 步弓 둘로 나누고

1) 《釋名·釋兵》: “弓, 穹也, 張之穹隆然也。其末曰簫, 言簫梢也; 又謂之弣, 以骨爲之, 滑弣弣也。中央曰拊; 拊, 撫也, 人所持撫也。簫、拊之間曰淵; 淵, 宛也, 言宛曲也。”

2) 5회: 玄德答曰: “關羽爲馬弓手, 張飛爲步弓手。”

3) 《中國古代器物大詞典-兵器·形具》은 앞으로 줄여서 《병기사전》이라고 부른다.

있는 것을 보아서, 저마다 다른 특징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馬弓手는 달리는 말 위에서 활을 당겼고, 步弓手는 두 발을 땅에 딛고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활을 당겼다. 따라서 보궁수가 사용하는 步弓은 아마도 기병이 사용하는 馬弓보다 활의 몸체도 좀 더 크고 탄력도 크고 사정거리도 길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2.2.2 【강궁(強弓)】

① 《삼국연의》의 묘사

모두 5번 나온다.

i) 12회: 曹操는 명령을 내려 強弓과 硬弩를 마구 쏘아 퍼부었고, 곧바로 典韋에게 명령을 내려 말을 내어 쳐들어가게 했다.⁵⁾

ii) 38회: 싸움배인 艨艟(騰幢) 위에는 저마다 強弓과 硬弩 천여 대를 설치해 놓고서⁶⁾

iii) 45회: 周瑜는 …… 북을 치는 군악대와 씩씩한 장수 몇 명을 거느리고 저마다 強弓과 硬弩를 들러 함께 樓船에 올라 느릿느릿 나아갔다.⁷⁾

iv) 63회: 張任은 …… 높은 언덕에서 強弓과 硬弩를 마구 쏘아댔다.⁸⁾

v) 64회 毛宗崗 회평: 張任은 強弓과 硬弩를 설치하였고, 諸葛亮은 長槍과 砍刀를 설치하였다.⁹⁾

② 정의

‘疆弓’이라고도 쓴다. 《병기사전》에는 그저 “강력한 힘이 있어야만 당길 수 있는 활(須用強力拉開的弓)”이라고만 정의하고 있다. ‘강력한 힘’의 기준이 되는 장력(張力)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확인할 수 없었다.

4) 明 朱國禎, 《湧幢小品·兵器》: “弓有二等, 曰馬, 曰步。”

5) 12회: 操令強弓硬弩射住, 令典韋出馬。

6) 38회: 艨艟上各設強弓硬弩千餘張,

7) 45회: 瑜欲 …… 帶著鼓樂, 隨行健將數員, 各帶強弓硬弩, 一齊上(樓)船, 迤邐前進。

8) 63회: 張任 …… 在高阜處, 用強弓硬弩射來。

9) 64회 毛宗崗 회평: 張任以強弓硬弩, 孔明以長槍砍刀。

③ 《후한서》와 《삼국지》의 기록

《후한서》와 《삼국지》 모두 ‘强弓’ 또는 ‘疆弓’이란 어휘가 나오지 않는다.

④ 남송 강궁의 사정거리

南宋 紹興 10년(1140년) 金나라 군대가 南宋을 공격하였을 때, 남송의 장수 吳璘이 金나라 기병을 상대하였던 전술로부터 强弓의 사정거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宋史·吳璘傳》: 70步(≒109m) 안까지 들어오게 되면 强弓부대가 함께 쏜다.

송나라 때, 1尺=31.2cm이다. 唐이후 1步=5尺으로 바뀌었으므로, 1步=5×31.2cm=156cm이다. 따라서 70步=10,920cm=109.2m이다. 따라서 강궁의 유효사정거리는 최대 약 109.2m임을 알 수 있다.

⑤ 후한 강궁의 張力과 사정거리 추측

漢簡과 漢 長安 未央宮에서 출토된 骨籤에 보이는 기록에 따르면, 활이 아닌 弩를 기준으로 “3石(79.2kg)짜리 弩는 120步(171m)거리를 쏠 수 있다.(三石具弩射百二十步)”라고 하였고, 4石(105.6kg.)짜리 弩는 “160步(228m)거리를 쏠 수 있다.(射百六步)”(《敦煌漢簡》829)라고 하였다.¹⁰⁾ 이는 1石(26.4kg)의 張力은 40步(57m)¹¹⁾의 거리 값을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활과 弩의 張力이 같을 때, 두 병기의 사정거리도 같다고 가정하면, 최대 유효사정거리가 109.2m인 南宋 强弓의 張力은 漢代를 기준으로 약 1.98石(≒52.3kg)¹²⁾의 값이 나온다. 그런데 오린이 언급한 강궁의 사정거리는 유효사정거리를, 漢簡의 사정거리는 최대사정거리를 뜻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남송 强弓의 張力은 1.98石보다 조금 높은 약 2.25석(59.4kg)¹³⁾쯤이라

10) 孫機의 《漢代物質文化資料圖說》, 168쪽. 1石=26.4kg이므로, 3石=79.2kg이고, 4石=105.6kg.

11) 後漢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步=6尺이고, 1尺=23.75cm이므로, 1步=6×23.75cm=142.5cm이다. 따라서 40步=5,700cm=57m.

12) 1.98石=1.98×26.4kg=52.272kg≒52.3kg.

고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後漢 强弓의 張力은 어느 정도였을까? 다음 기록을 보자.

《後漢書·蓋延傳》: 蓋延의 字는 巨卿이고, 漁陽 要陽 사람이다. 키는 8尺¹⁴⁾ (190cm)이고, 300斤(66kg)짜리 弓을 당길 수 있었다. 변방의 습속에는 날래고 힘센 것을 높이 치는데, 蓋延은 힘으로 이름이 났다.¹⁵⁾

《後漢書·祭彤傳》: 祭彤은 날래고 힘이 세서, 300근(66kg)짜리 弓을 당길 수 있었다.¹⁶⁾

후한의 1斤은 220g이다. 따라서 300斤짜리 활이란, 엄지로 66kg을 당기는 힘이 필요한 활을 뜻한다. 부대 단위로 운용된 후한 强弓의 張力은 이보다 낮은 275근(60.5kg)쯤의 張力을 가진 활로 추측된다. 이는 앞서 얻어진 남송 강궁의 張力인 약 2.25석(59.4kg)과 매우 가까운 값이다.

1石(26.4kg)의 張力은 40步(57m)의 거리 값을 가지고 있으므로, 300근(66kg)짜리 활의 최대사정거리는 142.5m가 나온다. 나아가 後漢 强弓의 張力을 275근(60.5kg)으로 가정하면, 그 최대사정거리는 약 130.6m가 나온다.

⑤ 强弓과 硬弩를 결합한 전술

《삼국연의》의 묘사를 살펴보면, 强弓은 전술적으로 늘 硬弩와 결합하여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지》 원문과 裴松之注가 인용하고 있는 문장에서, “활과 弩를 아울러 쏘다(弓弩並射)”¹⁷⁾, “활과 弩를 어지러이 쏘다(弓弩亂發)”¹⁸⁾, “활과 弩를 아울러 쏘다(弓弩並發)”¹⁹⁾의 예처럼 활(弓)과 弩를 결합

13) 후한 1石=120斤=26,400g. 1斤=220g. 따라서 2石=240斤=52,800g이고, 2.5石=300斤=66kg.

14) 後漢의 1尺=23.75cm이다. 8尺=8×23.75cm=190cm.

15) 《後漢書·蓋延傳》: “蓋延字巨卿, 漁陽要陽人也. 身長八尺, 彎弓三百斤. 邊俗尚勇力, 而延以氣聞.”

16) 《後漢書·祭彤傳》: “彤有勇力, 能貫三百斤弓.” 貫弓: 활을 한껏 당기는 것이다.

17) 《三國志·魏書·張邈傳》의 裴松之가 인용하고 있는 《英雄記》.

18) 《三國志·魏書·張郃傳》의 裴松之가 인용하고 있는 《魏略》.

19) 《三國志·吳書·孫策傳》의 裴松之가 인용하고 있는 《江表傳》.

하여 운용하는 전술을 여럿 찾아볼 수 있다.

앞에서 본고는 후한 强弓의 張力 값은 275근(60.5kg)쯤이고, 그 최대사정 거리는 약 130.6m로 추측하였다. 漢代에 실전에 있어가 가장 대표성을 띄는 노는 4石 弩였다.²⁰⁾ 4石(105.6kg.)짜리 弩는 “160步(228m)거리를 쏠 수 있다.(射百六步)”. 다시 말해서 强弓의 최대사정거리는 약 130.6m이고, 4石짜리 弩의 최대사정거리는 228m였다. 이는 두 병기의 사정거리가 단계적인 차이가 있음을 뜻하는 것이었고, 두 병기의 상호보완이 필요함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사정거리가 길지만 연발 발사 시간이 느린 硬弩와, 상대적으로 사정거리가 짧지만 연발 발사 시간이 빠른 强弓을 적절히 결합하여 운영한다면, 효과적으로 적을 깨뜨릴 수 있는 전술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아래는 南宋의 군대가 金나라 騎兵을 상대로 强弓과 强弩, 그리고 손과 발의 힘으로 당기는 蹶張弩인 神臂弓을 결합하여 실제로 운용하였던 戰術이다.

《宋史·吳璘傳》: 吳璘(1102-1167년)이 말하였다. “새롭게 만든 疊陣法이 있습니다. 전투를 벌일 때마다 長槍부대를 앞에 두고서 이들을 앉혀놓고 일어나지 않게 합니다. 그 뒤에는 가장 센 强弓부대를 두고, 그 뒤에는 强弩부대를 두고, 무릎을 꿇고 앉아 기다리게 합니다. 그 뒤에는 神臂弓부대를 둡니다. 대충 적군이 100步²¹⁾(≒156m) 안까지 들어오게 되면, 神臂弓부대가 먼저 쏘고, 70步(≒109m) 안까지 들어오게 되면 强弓부대가 함께 쏩니다. …… 이것은 고대에 隊伍를 묶는 軍令입니다. 고대의 軍법에도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알지 못할 뿐입니다. 車戰에 대하여 말씀드리지 못하고 남겨 놓은 작전의 아이디어도 여기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²²⁾

20) 孫機의 《漢代物質文化資料圖說》, 168쪽: “四石弩大約是實戰中最有代表性的弩種。” 硬弩 또는 强弩와 일반적인 弩를 구분하는 표준이 되는 사정거리나 張力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다.

21) 宋나라 때, 1尺=31.2cm이다. 唐이후 1步=5尺이므로, 1步=5×31.2cm=156cm이다. 100步=15,600cm=156m이고, 70步=10,920cm≒109m이다.

홍운기, 《三國演義》 界橋之戰의 戰術 描寫에 관한 고찰, 《中國語文論叢》51輯의 《宋史·吳璘傳》 거리 계산은 일부 착오가 있으므로, 본고에서 바로 잡는다.

22) 《宋史·吳璘傳》: (吳)璘曰: “有新立疊陣法: 每戰, 以長槍居前, 坐不得起; 次最强弓, 次强弩, 跪膝以俟; 次神臂弓。約賊相搏至百步內, 則神臂先發; 七十步, 强弓併發; …… 璘曰: “此古東伍令也, 軍法有之, 諸君不識爾。得車戰餘意, 無出於此。”

유효사정거리가 긴 순서대로 神臂弓부터 强弩와 强弓의 발사 순서를 안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3 【경궁(硬弓)】

① 《三國演義》에서의 묘사

모두 2번 나온다.

63회: 巴郡의 태수 嚴顏은 나이는 비록 많으나 아직도 힘이 넘쳐나서 硬弓을 잘 쏘고, 大刀를 잘 부리어, 만 명도 꿈쩍 못할 만큼 날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²³⁾

70회: 황충은 벽 위에 걸려 있던 硬弓을, 잇달아 잡아당겨 두 개나 부러뜨렸다.²⁴⁾

② 정의와 위력

바로 强弓이다. 《宋史·王榮傳》을 살펴보면, 强弓과 硬弓이 같은 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宋史·王榮傳》: “王榮은 활을 잘 쏘았다. 일찍이 强弓을 당겨 (화살을 쏘아) 집의 용마루에 화살이 박혔는데, 화살이 나무에 몇 寸 깊이로 박혔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그를 ‘왕경궁(王硬弓)’이라고 일컬었다.²⁵⁾

송나라 때에 1尺=31.2cm이고, 1寸=3.12cm이다. 임의 값 3촌=9.36cm이다. 경궁의 위력이 대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후한서》와 《三國志》의 기록

《후한서》와 《삼국지》에는 硬弓이라는 어휘는 나오지 않는다.

23) 63회: 巴郡太守嚴顏, 年紀雖高, 精力未衰; 善開硬弓, 使大刀; 有萬夫不當之勇。

24) 70회: (黃)忠 壁上硬弓連拽折兩張。

25) 《宋史·王榮傳》: 榮善射, 嘗引强注屋棟, 矢入木數寸, 時人目爲王硬弓'。

2.2.4 【양궁(良弓)】

① 《삼국연의》의 묘사

22회: 陳琳의 《爲袁紹檄豫州》: “良弓과 勁弩 부대를 제 힘껏 치달리게 할 수 있다.²⁶⁾”

② 정의

《한어대사전》과 《병기사전》은 良弓에 대하여, 그저 “잘 만들어진 훌륭한 활.(製作精良的弓)”으로만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전술적으로 勁弩와 짝하여 함께 쓰인 활은 彊弓(=强弓)이었다.

《史記·蘇秦列傳》: 천하의 彊弓과 勁弩는 모두 韓나라로부터 생산됩니다.²⁷⁾

따라서 ‘良弓’이란 바로 ‘强弓’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여겨진다.

③ 《후한서》와 《三國志》의 기록

《후한서》와 《三國志》에는, 陳琳의 《爲袁紹檄豫州》의 ‘良弓’이 그대로 언급되어 있었다.

④ 그 밖의 전적에 보이는 良弓에 관한 기록

《墨子·親土》: 良弓은 당기기는 어렵지만, 높고 깊은 곳까지 화살을 날릴 수 있다.²⁸⁾

《史記·淮陰侯列傳》: 韓信이 말하였다. “과연 사람들의 말대로구나. ‘교활한 토끼가 죽으면 훌륭한 사냥개를 삶아서 잡아먹고, 높이 나는 새를 다 잡으면 良弓을 치워두고, 적국을 깨뜨리면 지략을 가진 신하를 죽인다.’라고 하더니.”²⁹⁾

《三國志·文帝紀》에 裴松之 注가 인용한 <典論>: 建安 10년(205년) 冀州

26) 22회: 騎良弓勁弩之勢騁。

27) 《史記·蘇秦列傳》: 天下之彊弓勁弩皆從韓出。

28) 《墨子·親土》: 良弓難張, 然可以及高入深。

29) 《史記·淮陰侯列傳》: 信曰: 果若人言, “狡兔死, 良狗亨; 高鳥盡, 良弓藏; 敵國破, 謀臣亡。”

(의 袁譚)를 평정하자, 濊族과 貊族은 良弓을 바쳤다.³⁰⁾

후한 말기 濊族과 貊族의 특산품이 良弓이었음을 알 수 있다.

2.2.5 【2석력지궁(二石力之弓)】 또는 【2석지궁(二石之弓)】

① 《삼국연의》에서의 묘사

53회: “黃忠은 2石짜리 활(二石力之弓)을 당길 수 있었는데, 쏘는 족족 모두 맞힐 수 있었다.”³¹⁾

83회: 황충이 말하였다. “지금 내 나이는 비록 70이 넘었지만, 아직도 고기를 10斤(2.2kg)³²⁾이나 먹고, 팔로는 2石짜리 활(二石之弓)을 당기며, 하루에 1,000里(435.6km)³³⁾를 달리는 말을 탈 수 있으니, 아직은 늙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네.”³⁴⁾

② 정의

2石의 張力을 가진 활이다.

③ 《후한서》와 《삼국지》의 기록

《후한서》와 《삼국지》에는 2석력지궁(二石力之弓)이란 어휘도 없고, 황충이 이러한 활을 당겼다는 기록도 없다.

④ 2石의 張力

石은 본디 重量을 헤아리는 단위로 중국어로는 dàn으로 읽는다. 활과 노의 張力을 따지는 단위로도 쓰이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활의 張力을 헤아리는 단위로는 斤을 썼고, 弩의 張力을 헤아리는 단위로는 石을 썼으나, 활의 張力을 헤아릴 때도 石을 쓰기도 하였다. 後漢과 三國 시기에 1石=26,400g=26.4kg이다. 따라서 2石=26.4×2=52.8kg≒53kg이 된다. ‘二石弓’이란 2石의 張力,

30) 《三國志·文帝紀》에 裴松之 주가 인용한 <典論>: 建安十年, 始定冀州, 濊, 貊貢良弓。

31) 53회: “黃忠能開二石力之弓, 百發百中。”

32) 後漢 1斤=220g.

33) 후한 삼국 1里=6×0.242×300=435.6m. 1,000里=435.6km.

34) 83회: 忠曰: “今雖七十有餘, 尚食肉十斤, 臂開二石之弓, 能乘千里之馬, 未足爲老。”

즉 53kg을 당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 겨우 쏠 수 있는 활이다. 앞서 살펴 보았던 《後漢書》에 나오는 蓋延과 祭彤과 같은 장수들이 당겨 쏘았던 強弓은 300斤(66kg)짜리였는데, 이는 2.5石에 해당된다.³⁵⁾

⑤ 2석짜리 활(二石力之弓)의 사정거리

1石(26.4kg)의 張力은 40步(57m)의 거리 값을 가지고 있으므로, 2石(52.8kg)의 張力은 약 80步(114m)를 쏠 수 있었을 것이다.

⑥ 활의 張力을 재는 방법

활의 張力을 재는 방법에 대해서는 명대 宋應星의 《天工開物·佳兵·弧矢》에 나와 있다.

무릇 활을 만들 때에는 활을 다룰 사람의 힘이 센 지 약한 지를 보고서 활의 張力의 정도를 정해야만 한다. 가장 힘이 센 상 등급의 사람은 120斤(≒71kg)³⁶⁾을 당길 수 있는데, 이 정도를 넘기는 힘을 '범의 힘(虎力)'이라고 부르며, 이 정도의 힘을 가진 사람은 자주 나오지 않는다. 힘이 중간 등급의 사람은 120근의 20-30%를 뺀 84-96근(≒50-54kg)³⁷⁾을 당길 수 있으며, 힘이 가장 낮은 등급의 사람은 120근의 50%인 60근(35.4kg)³⁸⁾을 겨우 당길 수 있다. 활의 시위를 한껏 당겼을 때, 이들은 모두 목표를 쏘아 맞힐 수 있다. 그러나 싸움터에서 활이 적의 가슴을 꿰뚫고 깊숙이 찌르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센 활을 당길 수 있는 사람에게 그 공을 돌려야만 한다. 그러나 낮은 등급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100보(=163.5m)³⁹⁾ 떨어진 곳에서 버드나무 잎을 맞힐 수 있거나 이의 심장을 맞힐 수 있다면, 정확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으며 훌륭한 것이다. 무릇 활의 張力을 측정하려면, 발로 활의 시위를 땅에 밟은 다음, 저울의 갈고리를 활 허리(弓腰)에 걸고서, 활의 시위가 한껏 당겨질 때까지, 저울이 平衡을 이루도록 저울추를 옮겨가면 활의 張力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다.

글과 그림의 내용이 다르기는 하지만, 학자들은 그림이 더욱 정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저울 양 끝에 저마다 추와 활을 달아서 張力을 재었다.

35) 30斤=1鈞이고, 4鈞=1石이므로, 300斤=10鈞이다. 10鈞을 4로 나누면, 2.5石이 된다.

36) 明代 1斤=590g. 120斤=120×590g=70,800g=71kg.

37) 84斤=84×590g=49,560g≒50kg. 96근=96×590g=53,760g≒54kg.

38) 60斤=60×590g=35,400g=35.4kg.

39) 明代 量地尺1尺=32.7cm. 1步=5尺=5×32.7cm=163.5cm. 100步=16,350cm=163.5m.

2.2.6 【3석지궁(三石之弓)】

① 《삼국연의》의 묘사

70회: 황충이 말하였다. “내가 비록 늙었으나, 이 두 팔로 아직도 3石짜리 활을 너끈히 당길 수 있소.”⁴⁰⁾

② 정의

2石의 張力을 가진 활이다.

③ 《후한서》와 《삼국지》의 기록
《후한서》와 《삼국지》에는 3석지궁(三石之弓)이란 어휘도 없고, 황충이 이러한 활을 당겼다는 기록도 없다.

④ 3石의 張力

3石=26.4×3=79.2kg≈80kg이다. 이는 두 손으로 당기기에는 무척 힘든 張力이라고 할 수 있다. 53회와 83회에서는 2石짜리 활(2石之弓)을 당길 수 있다고 하였는데, 70회에서는 3石짜리 활(3石之弓)을 당길 수 있다고 하였다. 《삼국연의》의 기록이 일관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앞의 《후한서》에 蓋延과 祭彤이 300斤(2.5石)을 당기는 것이 대단하다고 기록된 것으로 봐서, 늙은 황충이 3石짜리 활을 너끈히 당긴다는 것은 사실성이 떨어지는 과장된 묘사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 활의 張力을 재는 방법. 《天工開物》

2.2.7 【철태궁(鐵胎弓)】

① 《삼국연의》에서의 묘사

83회: 노장 황충은 金鎖甲을 겹으로 끼입고, 鐵胎弓에 두 발의 화살을 걸어 당겼네.⁴¹⁾

40) 70회: “(黃)忠…曰: “某雖老, 兩臂尙開三石之弓.”

41) 83회: 重披金鎖甲, 雙挽鐵胎弓. 이 시에서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雙挽’이다. ‘鐵胎’

② 정의

鐵胎弓은 쇠를 활등(弓背)의 안쪽에 붙여서 활을 튼튼하게 한 활이다.

③ 《후한서》와 《삼국지》의 기록

《후한서》와 《삼국지》에는 ‘鐵胎弓’이란 말이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황충이 철태궁을 썼다라고 하는 《삼국연의》의 묘사는 허구이다.

④ 철태궁의 위력

鐵胎弓의 위력에 대해서는, 宋나라 趙雄의 《韓蕲王碑》에, “철태궁은 겨누어 쏘기만 하면, 비록 쇠와 돌이라도 모두 꿰뚫는다.”⁴²⁾라고 하였다.

2.2.8 【양석철태궁(兩石鐵胎弓)】

① 《삼국연의》에서의 묘사

97회: 그(王雙)는 60斤(13.2kg)⁴³⁾짜리 大刀를 휘두르고, 하루에 1,000리를 달리는 征宛馬를 타며, 2石짜리 철태궁(兩石鐵胎弓)을 당겨 쏘고, 세 덩이의 유성추(三個流星錘)를 몰래 숨겨 가지고 다닙니다. 그는 철태궁을 쏘는 대로 유성추를 던지는 대로 죄다 맞힐 수 있습니다. 만 명의 사내가 달려들어 도 그 한 사람한테 맞설 수는 없습니다.⁴⁴⁾

② 정의

2石의 張力을 가진 철태궁이다.

③ 《후한서》와 《삼국지》의 기록

《후한서》와 《삼국지》에는 王雙이 ‘兩石鐵胎弓’을 쏘았다는 기록이 없다.

弓이 2石짜리라면, 2石짜리 鐵胎弓 두 대를 동시에 당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이 구는 앞 구의 ‘重拔’와 대구를 이루기 위하여, 시적표현으로 ‘雙挽’을 쓴 것으로 여겨진다. 한 줄의 활시위에 두 발의 화살을 동시에 건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42) 趙雄의 《韓蕲王碑》: “鐵胎弓所向, 雖金石皆洞貫。”

43) 後漢 1斤=220g. 60斤=60×220g=13,200g=13.2kg.

44) 97회: 臣近得一員大將, 使六十斤大刀, 騎千里征宛馬, 開兩石鐵胎弓, 暗藏三個流星錘, 百發百中, 有萬夫不當之勇。

2.2.9 【염호(縶弧)】

① 《삼국연의》에서의 묘사

78회 毛宗崗의 回評: “曹操은 세 마리 말이 하나의 말구유의 여물을 먹는 (똑같은) 꿈을 (두 번이나) 꾸었는데⁴⁵⁾, (두 번째 꾸은 꿈은) 馬騰이 이미 죽은 뒤에 꾸은 꿈이었다.⁴⁶⁾ 이러한 일을 보노라면, 운수의 속에 담긴 깊은 뜻에 대하여 은근히 감탄하게 된다. 이것은 사람의 의도로서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있음을 뜻한다. 周나라 宣王은 ‘염호(縶弧)’의 노래 때문에 활과 화살을 파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였는데, 그 응험이 포사(褒姒)에게 있었음을 알지 못했다.⁴⁷⁾”

여기에서 ‘염호(縶弧)’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염호(縶弧)’가 ‘周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예언의 노래를 뜻한다. 이는 실제로는 염호를 팔던 사람이 주위 길렀던 포사(褒姒)를 뜻하는 것이었다.⁴⁸⁾ 따라서 毛宗崗의 回評은, 미래에

45) 《晉書·宣帝紀》: 宣帝(司馬懿)는 마음속으로는 꺼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겉으로는 너그러운 듯이 굴었다. 시새우고 꺼리면서도 상황에 재빠르게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위 무제(조조)는 선제가 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가 이리처럼 흥흥글글 돌아보는 인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그를 시험해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그를 불러들여 앞으로 걸어가게 한 다음에 그를 불러서 되돌아보게 하였다. 선제는 얼굴을 앞으로 향해 있다가 뒤로 돌렸는데, 몸은 앞을 향한 채 그대로였다. 위 무제(조조)는 또한 일찍이 세 마리 말이 함께 하나의 구유에 담긴 여물을 먹는 꿈을 꾸 적이 있었는데, 이 꿈을 몹시 불길하게 생각하였다. 이 때문에 태자였던 조비에게 말하였다. “사마의는 다른 사람의 밑에서 신하노릇을 할 사람이 아니다. 틀림없이 네 집안의 일에 끼여들 것이다. (帝內忌而外寬, 猜忌多權變. 魏武察帝有雄豪志, 聞有狼顧相, 欲驗之. 乃召使前行, 令反顧, 面正向後而身不動. 又嘗夢三馬同食一槽, 甚惡焉. 因謂太子丕曰: “司馬懿非人臣也, 必預汝家事.”) 《삼국연의》 78회에 따르면, 조조는 세 마리 말이 사마의의 집안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진서·선제기》의 기록에 따르면, 조조는 세 마리 말이 사마의의 집안사람들이라는 것을 이미 알아차렸다고 기록하고 있다.

46) 따라서 이 꿈은 馬騰과 그의 아들인 馬超·馬岱들과는 관련이 없고, 司馬懿·司馬師·司馬昭가 曹魏을 차지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다.

47) 78회 毛宗崗의 回評: 觀三馬同槽之夢, 又在馬騰既死之後, 而竊歎數之所伏, 有非人意計之所得防也. 周王以“縶弧”之謠殺弓人, 而不知其應在褒姒.

48) 《史記·周本紀》는 포사가 주나라 幽王의 정치적 판단을 흐리게 하여 주나라를 멸망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사기·주본기》: 宣王 때 어린 여자애들이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렀다. “산뽕나무로 만든 활과, 기(箕)나무로 만든 화살집이 周나라를 멸망시키리라.” 이 때 선왕은 이 활과 화살집을 파는 부부가 있다는 것을 듣고는 이들을 붙잡아다가 죽이게 하였다. 이 부부는 달아나다가, 얼마 전에 後宮의 어린 시녀가 길에

어떤 일이 벌어질 지에 대한 조짐은 그 앞에 나타나는데, 어리석은 인간이 이를 알지 못할 뿐이고, 그 조짐은 참으로 靈驗하여 감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② 정의

《史記·周本紀》의 '槩弧箕服'에 대한 韋昭의 注에, “산뽕나무를 棼(槩)이라고 부른다. 호(弧)는 활이다. 기(箕)는 나무 이름이다. 복(服)은 활집이다.(山桑曰槩。弧, 弓也。箕, 木名。服, 矢房也.)”라고 하였다. 《漢書·五行志下》의 “棼호는 뽕나무 활이다.(槩弧, 桑弓也.)”에 대한 顏師古의 注에, “棼(槩)은 산뽕나무 가운데 점무늬가 있는 것이다. 나무 활을 일컬어 호(弧)라고 한다.(槩, 山桑之有點文者也。木弓曰弧.)”라고 하였다. 따라서 棼호(槩弧)는 산뽕나무로 만든 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산뽕나무 재질의 특성

산뽕나무는 활의 몸체를 만드는 7등급의 재료 가운데 3등급의 우수한 재료였다.

《周禮·考工記·弓人》: “무릇 활의 몸체를 만드는 재료로는 7종류가 있다. 산뽕나무(柘)가 가장 상 등급이고, 감탕나무(櫨)가 그 다음이며, 산뽕나무(槩桑)가 그 다음이며, 굴나무(橘)가 그 다음이며, 모과나무(木瓜)나무가 그 다음이며, 모형나무(荊)가 그 다음이며, 대나무(竹)가 가장 하 등급이다.”⁴⁹⁾

《爾雅·釋木》의 “산뽕나무는 산에서 자라는 뽕나무이다.(槩桑, 山桑.)”에 대한 郭璞의 注에, “뽕나무와 비슷하며, 나무의 속심으로 활 및 수레의 끌채를

다 내다버린 괴이한 아이를 만나게 되었다. 이 부부는 그 아이가 밤에 우는 소리를 듣고는 그 아이를 가엽게 여겨 거두었고, 부부는 마침내 몸을 빼내, 포(褒)까지 달아날 수 있었다. 포(褒) 사람이 罪를 짓자, 어린 시녀가 버렸던 여자를 幽王에게 바쳐서 속죄를 청했다. 이 버려진 여자는 포(褒)에서 나왔고, 이 여자가 포사(褒姒)가 되었다. (宣王之時童女謠曰: “槩弧箕服, 實亡周國.” 於是宣王聞之, 有夫婦賣是器者, 宣王使執而戮之. 逃於道, 而見鄉者後宮童妾所棄妖子出於路者, 聞其夜啼, 哀而收之, 夫婦遂亡, 奔於褒. 褒人有罪, 請入童妾所弃女子者於王以贖罪. 弃女子出於褒, 是爲褒姒.)

49) 《周禮·考工記·弓人》: “凡取幹之道七: 柘爲上, 櫨次之, 槩桑次之, 橘次之, 木瓜次之, 荊次之, 竹爲下.”

만든다.(似桑, 材中作弓及車轆.)”라고 하였다. 郝懿行的 《爾雅義疏》에, “지금의 산뽕나무의 잎사귀는 민가에서 기르는 뽕나무보다 작으며 뽕나무 잎의 가장자리가 깊이 패어 들어간 부분이 많다. 나무의 특성은 몹시 굳고 단단하다.(今山桑葉小於桑而多缺刻, 性尤堅緊.)”라고 하였다.

2.3 군사 기병용 활

2.3.1 【마궁(馬弓)】

① 《삼국연의》의 묘사

5회: 유비가 대답하였다. “관우는 마궁수이고, 장비는 보궁수입니다.”⁵⁰⁾

② 정의

《漢語大詞典》에 마궁에 대한 풀이는 없고, 《병기사전》에는 “기병이 쓰는 활이다.(騎兵用弓)”라고 하였다.

③ 《후한서》와 《삼국지》의 기록

《후한서》와 《삼국지》에는 ‘馬弓’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관우가 마궁수였다는 기록은 없다.

2.3.2 【각궁(角弓)】

① 《삼국연의》에서의 묘사

69회: 점쟁이 管輅가 8尺(193.6cm)⁵¹⁾ 깊이의 땅속에 파묻힌 관속에 주검과 각궁과 화살이 있다고 말하여, 땅을 파보자 그의 말대로 “한 쪽의 관 안에는 角弓 및 화살(箭)이 있었다.”⁵²⁾

50) 5회: 玄德答曰: “關羽爲馬弓手, 張飛爲步弓手。”

51) 후한 삼국시기 1尺=24.2cm이다. 따라서 8尺=8×24.2cm=193.6cm

52) 《삼국연의》 69회: “一棺中有角弓及箭。”

② 정의

《漢語大詞典》은 ‘짐승의 뿔로 꾸민 경궁 (以獸角爲飾的硬弓)’이라고 풀이하고 있고, 《병기사전》에도 그저 ‘활의 양 끝에 짐승의 뿔을 꾸미개로 박아 넣은 활(兩端鑲著獸角的弓)’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풀이는 《詩·小雅·角弓》의 角弓에 대한 朱熹의 傳인, “각궁은 뿔로 꾸민 활이다.(角弓, 以角飾弓也.)”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나 본고는 “짐승의 뿔로 몸체를 겹으로 붙여 만든 복합궁”이라는 풀이를 더하고자한다.

③ 《삼국지》의 기록

위 이야기는 《三國志·管輅傳》에 대한 裴松之 注가 인용한 《管輅別傳》에 나오는 것이다.

땅을 8尺(193.6cm) 깊이로 파들어 가보니, 과연 관이 두 개가 있었다. 한 쪽의 관 안에는 矛가 있었고, 다른 한 쪽의 관 안에는 角弓 및 화살이 있었다. 화살은 아주 오래되어서 나무는 모두 썩어 문드러졌지만, 쇠와 뿔은 그대로였다.⁵³⁾

따라서 《삼국연의》에서 묘사하고 있는 점쟁이 관로의 신통력은 역사 기록에 바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角弓의 뿔(角)의 재료적 특성

‘角弓’의 ‘角’은 그저 활체의 겉에 뿔을 꾸미개로 박아 넣은 것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複合弓에 쓰이는 재료로 쓰이는 뿔로 만든 활을 가리킨다. 《考工記·弓人》에서는, 활을 만드는 ‘6가지 재료(六材)’ 가운데 뿔이 갖는 재료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뿔은 활의 빠르기를 결정한다.(角也者。以爲疾也)’. 뿔(角)이 彈力을 일으켜서 화살의 나는 속도를 높이는 중요한 재료라는 것이다.

⑤ 그 밖의 典籍에 보이는 角弓에 관한 기록

www.kci.go.kr

53) 《三國志·管輅傳》裴注：“輅別傳曰：……入地八尺，果得二棺，一棺中有矛，一棺中有角弓及箭，箭久遠，木皆消爛，但有鐵及角完耳。”

쥬 崔豹의 《古今注》권상: “兩漢 시기에는 경조의 하남윤 및 집금오와 사례교위는 모두 아랫사람을 시켜 길을 열어 이끌게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길 가는 사람을 멈추게 하였고, 앉아있던 사람을 일어나게 하였다. 네 사람은 모두 角弓을 가지고 있다가, 여기는 사람이 있으면 곧바로 활로 그를 쏘았다. 높은 곳에서 엿보거나 바라보는 사람이 있으면, 또한 그 사람을 쏘았다. 魏쥬 시기에는 角弩를 두기는 하였지만, 쓰지는 않았다.”⁵⁴⁾

《太平御覽》 권347에 인용된 쥬 虞溥의 《江表傳》: 고구려 왕은 사신을 보내어 손권에게 角弓을 바쳤다.”⁵⁵⁾

《隋書·東夷傳·靺鞨》: “사람들은 모두 사냥을 일거리로 삼았는데, 角弓은 길이가 3尺(88.8cm)이고, 화살은 길이가 1.2尺(35.52cm.)⁵⁶⁾이다. 늘 7월과 8월에 독약을 만들어, 화살에 묻혀서 짐승을 쏘는데, 화살에 맞은 짐승은 그 자리에서 죽는다.”⁵⁷⁾

《唐六典·衛尉寺》: “활을 만드는 방법에 따라 4종류가 있다. 첫째는 장궁(長弓)이고, 둘째는 각궁(角弓)이고, 셋째는 초궁(稍弓)이고, 넷째는 격궁(格弓)이다.”⁵⁸⁾ 이에 대한 李林甫의 주에, “각궁은 짐승의 힘줄과 뿔로 만드는데, 기병이 쓴다.(角弓以筋角, 騎兵用之.)”라고 하였다.

각궁은 고구려나 말갈이 즐겨 썼고, 탄력이 좋아서 작은 크기로 만들 수 있었으므로, 기병이 썼던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角弓은 짐승의 뿔(角)로 만든 복합궁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54) 崔豹의 《古今注》권상: 兩漢京兆河南尹及執金吾、司隸校尉, 皆使人導引傳呼, 使行者止, 坐者起, 四人皆持角弓, 違者則射之。有乘高窺闕者, 亦射之。魏晉設角弩而不用也。

55) 《太平御覽》 권347에 인용된 쥬 虞溥의 《江表傳》: 高句驪王遣使貢孫權角弓。

56) 隋나라 1尺=29.6cm, 3尺=88.8cm, 1.2尺=35.52cm.

57) 《隋書·東夷傳·靺鞨》: 人皆射獵爲業, 角弓長三尺, 箭長尺有二寸。常以七八月造毒藥, 傳矢以射禽獸, 中者立死。

58) 《唐六典·衛尉寺》: “弓之制有四: 一曰長弓, 二曰角弓, 三曰稍弓, 四曰格弓。”

2.3.3 【경궁(輕弓)】

① 《삼국연의》에서의 묘사

28회: 과연 십여 기의 말을 탄 병사들이 가벼운 활인 경궁(輕弓)과 짧은 화살(短箭)을 차고 달려오는 모습이 (장비의) 눈에 들어왔다.⁵⁹⁾

② 정의

《한어대사전》은 “가벼워서 쓰기에 편리한 활(輕便的弓.)”로, 《병기사전》은 “가볍고 작은 활(輕小的弓.)”로 정의하였다.

③ 《후한서》와 《삼국지》의 기록

《후한서》와 《삼국지》에는 ‘輕弓’이란 어휘가 나오지 않는다.

④ 용도

아마도 기병들이 쓰는 작은 활을 가리키는 것 같다.

2.4 의장용 및 권력 상징용 활

2.4.1 【조궁(雕弓)】

① 《삼국연의》의 묘사

4번 나온다. 曹씨 종족의 사람들 · 黃忠 · 龐德 · 姜維가 쓰는 활로 나온다.

56회: 曹씨의 종족들은 모두 붉은 색 옷을 입었고, 나머지 장수들은 모두 녹색 옷을 입었는데, 저마다 조궁(雕弓)과 긴 화살(長箭)을 지니고,⁶⁰⁾

71회: (황충은) 힘껏 雕弓을 쏘았고⁶¹⁾

74회: 방덕은 스리슬쩍 雕弓을 뽑더니 화살을 먹여 쏘려고 하였다.⁶²⁾

112회: 그 어린 장수가 말을 내달려 쫓아오자, 강유는 鋼槍을 걸어 붙여두

59) 28회: 張飛……, 果見十數騎輕弓短箭而來。

60) 56회: 曹氏宗族俱穿紅, 其餘將士俱穿綠, 各帶雕弓長箭

61) 71회: 力趁雕弓發

62) 74회: 龐德 , 偷拽雕弓, 搭上箭射將來。

고는 스리슬쩍 彫弓과 화살을 꺼내어 그를 쏘았다.⁶³⁾

② 정의

《한어대사전》에는, “꽃무늬를 새기거나 그림을 그려 넣은 활; 예쁘게 잘 만들어진 활(刻繪花紋的弓; 精美的弓.)”이라고 정의하였다. 《병기사전》에는 “조궁(彫弓)과 같다. 색깔이나 그림을 그려 넣은 활(同“彫弓”。施彩繪的弓.)”이라고 정의하였다.

③ 《후한서》와 《삼국지》의 기록

《후한서》와 《삼국지》에는 ‘彫弓’ 또는 ‘彫弓’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④ 문화적 의미

彫弓은 禮制에 따르면, 천자가 쓴다.

《荀子·大略》: 天子는 그림이 그려진 활인 조궁(彫弓)을 쓰고, 諸侯는 붉은색 활인 동궁(彤弓)을 쓰며, 大夫는 검은 색 활인 흑궁(黑弓)을 쓴다. 이것이 예(禮)이다.⁶⁴⁾

이에 대한 楊倞의 注에, “彫는 그림을 그려 넣어 무늬를 꾸민 것이다. 동궁(彤弓)은 붉은색 활이다. 이것은 신분이 높고 낮음에 따라 입고 쓰는 것이 다를름을 나타내는 예법인 것이다.(彫謂彫畫爲文飾; 彤弓, 朱弓。此明貴賤服御之禮也.)”라고 하였다. 그리고 《說文解字·弓部》에는 “돈(弣)은 그림이 그려진 활이다.(弣, 畫弓也.)”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段玉裁 注에, “조궁(彫弓)이라고 하는 것은 다섯 색깔로 활에 그림을 그려 넣은 것이다. 무릇 經과 傳에서 彫라고 하는 것은 새겨 넣은 것을 일컫는 것이 있다. …… 그리고 그림을 그려 넣은 것을 일컫는 것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것으로는 彫弓이 그러하다.(彫弓者, 蓋五采畫之。凡經傳言彫, 有謂刻鏤者。…… 有謂繪畫者。如此彫弓是也.)”라고 하였다. 이들 풀이들 가운데 특히 段玉裁의 풀이는 彫자의 뜻이 ‘새겨 넣다’는 뜻이 아니라, ‘그려 넣다’는 뜻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다. 활을 한껏 당기게

63) 112회: 那小將驟馬追來, 維掛住了鋼槍, 暗取彫弓羽箭射之.

64) 《荀子·大略》: 天子彫弓, 諸侯彤弓, 大夫黑弓, 禮也.

되면, 활의 몸체는 크게 변형이 일어나면서 큰 힘을 받게 된다. 만약에 겉모양을 꾸미기 위하여 활의 몸체에 ‘무늬를 새겨 넣는’ 흠집을 내게 되면, 활은 최대한의 힘을 축적하기 어렵고, 심지어는 부러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디 천자가 쓰는 의장용 활인 寶雕弓, 《삼국연의》에서는 일반 장수들이 쓰는 것으로 묘사한 점이 흥미롭다.

2.4.2 【보조궁(寶雕弓)】

① 《삼국연의》의 묘사

모두 3번 나온다.

20회: 獻帝는 “寶雕弓과 金鈚箭을 찾다.”⁶⁵⁾

20회: 조조는 “寶雕弓을 끝내 황제에게 되돌려드리지 않고서, 제가 걸어 찾다.”⁶⁶⁾

94회: “越吉 元帥는 손으로는 鐵錘를 당겨들고서, 허리에는 寶雕弓을 차고 있었다.”⁶⁷⁾

② 정의

《한어대사전》과 《병기사전》 모두 “보석으로 꾸민 雕弓.(用珍寶裝飾的雕弓.)”으로 정의하였다. 활에 조각을 새기거나 보석을 박아 넣어 꾸미는 것은 활의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불필요하게 무거워질 수 있고, 부러지기 쉬울 수 있다. 따라서 보조궁은 실제 전투에서 쓰이는 활이 아니라, 儀仗用이나 誇示用으로 쓰이는 활이다.

③ 《후한서》와 《삼국지》의 기록

《후한서》와 《삼국지》에는 ‘寶雕弓’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④ 그 밖에

天子만이 쓸 수 있는 雕弓을, 이민족의 武將인 越吉 元帥에게 안배하여 묘사

65) 20회: 帶寶雕弓、金鈚箭

66) 20회: 竟不獻還寶雕弓, 就自懸帶.

67) 94회: 越吉元帥手挽鐵錘, 腰懸寶雕弓.

한 것이 흥미롭다.

2.4.3 【천자보조궁(天子寶雕弓)】

① 《삼국연의》의 묘사

20회: 조조는 곧 天子寶雕弓과 金鈚箭을 달라고 하여 받아들더니 활시위를 한껏 재어 한 발을 쏘았다. 화살은 사슴의 등짝을 정확히 맞혔고, 사슴은 풀 속에 고꾸라졌다.⁶⁸⁾

② 정의

《한어대사전》과 《병기사전》에는 이에 관한 정의가 없다. 황제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하여 특별히 보석을 박아 넣고 무늬를 새겨 꾸민 활이다.

③ 《후한서》와 《삼국지》의 기록

《후한서》와 《삼국지》에는 ‘天子寶雕弓’이란 말이 나오지 않는다.

④ 그밖에

조조가 헌제와 함께 허도에서 사냥을 나갔다가, 헌제의 ‘天子寶雕弓’으로 사슴을 쏘아 맞힌 뒤에 건방을 떠는 것에 관한 묘사는 허구이다. 《삼국지·촉서·관우전》에 대하여, 裴松之 주가 인용하고 있는 다음의 《촉기(蜀記)》의 기록이 《삼국지》에 나오는 許都 사냥에 관한 전부이다.

《蜀記》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지난날 유비가 허도에 있을 적에 曹公(조조)와 함께 사냥을 했었다. 사냥을 하다가 무리가 흩어지자, 관우는 유비에게 조공을 죽이자고 하였다. 그러나 유비는 관우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⁶⁹⁾

2.4.4 【동궁(彤弓)】

① 《삼국연의》에서의 묘사

61회: 헌제가 조조를 魏公으로 삼으면서, 조조에게 내려주는 아홉 가지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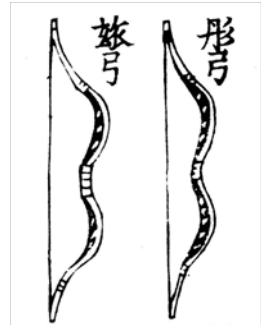
68) 20회: (曹)操就討天子寶雕弓、金鈚箭、扣滿一射、正中鹿背、倒於草中。

69) 《蜀記》曰：初，劉備在許，與曹公共獵。獵中，衆散，羽勸備殺公，備不從。

리를 나타내는 상징적 물건인 구석(九錫) 가운데 하나인 궁시(弓矢)에 관한 풀이에 나온다. “붉은 활인 동궁(彤弓) 1개와 붉은 화살인 동시(彤矢) 100대. 동(彤)은 붉은 색이다.”⁷⁰⁾

② 정의

《한어대사전》과 《병기사전》 모두 “붉은 칠을 한 활.” 그리고, “고대에 천자가 공(功)이 있는 제후나 대신에게 내려주어 정벌(征伐)을 도맡았음을 상징하는 활”로 정의하고 있다.



[그림 2] 彤弓과 彤矢
[宋] 聶崇義 《新定三禮圖》

③ 《후한서》와 《삼국지》의 기록

《후한서》에는 원소가 동궁(彤弓)을 언급하는 내용이 나온다.

《後漢書·袁紹傳》: 원소가 헌제에게 글을 올려 말하였다: “..... 저는 작위가 徹侯이고, 봉록은 2,000石입니다. 특수한 은혜와 두터운 은덕을, 저는 이미 걸맞지 않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찌 감히 더 무거운 대우를 넘겨다 보며, 붉은 활인 동궁(彤弓)과 검은 화살인 노시(旅矢)를 받잡는 명령을 바랄 수 있겠나이까?”⁷¹⁾

그리고, 《삼국지·위서·위무제기》에 따르면, 建安 18년(213년) 5월 10일 丙申날에, 헌제가 조조에게 내린 策命⁷²⁾에, 헌제가 조조에게 동궁(彤弓)을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대(조조)는 마치 용이 솟아오르는 듯하고 범이 노려보듯이, 8방을 둘러보고 반역의 무리들을 토벌하고, 천하 사방의 도적떼를 무찌르고 있소. 이에 그대에게 붉은 활인 동궁(彤弓) 1개와 붉은 화살인 동시(彤矢) 100대와, 검은 활인 노궁(旅

70) 61회 弓矢에 관한 풀이: 彤弓一, 彤矢百. 彤, 赤色也.

71) 《後漢書·袁紹傳》: 紹上書曰: “.....臣爵爲通侯, 位二千石. 殊恩厚德, 臣旣叨之, 豈敢闕覬重禮, 以希彤弓旅矢之命哉?”

72) 策命: 군주가 신하에게 封地와 爵位를 내렸음을 선포하는 간단한 문서. 《文選》 권35에 이같은 <冊魏公九錫文>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다. 潘勗이 쓴 글이다.

弓) 10개와 검은 화살인 노시(旅矢) 1,000대를 주겠소.⁷³⁾

동시(彤矢)는 붉은 칠을 한 화살이며, 천자가 공이 있는 제후나 대신에게 내려주는 화살이다.

④ 고대 전적에 보이는 동궁(彤弓)에 관한 기록

군주가 신하에게 동궁(彤弓)을 내려주는 의식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尚書·文侯之命》: 내가 그대에게 울창주 한 통과 붉은 활인 동궁(彤弓) 1개와 붉은 화살인 동시(彤矢) 100대, 검은 활인 노궁(盧弓) 1개와 검은 화살인 노시(盧矢) 100대, 그리고 말 4필을 주노라.⁷⁴⁾

이에 대하여 孔安國의 傳에 이르기를, “제후 가운데 큰 공이 있는 사람에게, 천자는 활과 화살을 내려서 정벌을 도맡게 한다. 붉은 활인 동궁(彤弓)으로써 정벌의 도덕성과 정당성을 따져보며 활을 쏘는 훈련을 하고, 간직하였다가 이를 자손에게 보여준다.(諸侯有大功, 賜弓矢, 然後專征伐。彤弓以講德習射, 藏示子孫.)”라고 하였다.

그리고 《春秋左傳》에도 동궁(彤弓)에 관한 기록이 있다.

《春秋左傳·僖公二十八年》: “(5월) 周의 襄王은 尹氏·王子인 虎·內史인 叔興父에게 명령을 내리시어, 策書로써 晉 文公을 제후들의 우두머리인 侯伯으로 임명하시고, 금색의 큰 수레인 大輅와 그에 걸맞은 복장과, 전차인 戎輅과 그에 걸맞은 복장과, 붉은 칠을 한 활인 동궁(彤弓) 1개와 붉은 칠을 한 화살인 동시(彤矢) 100대, 검은 칠을 한 활인 노궁(旅弓) (10대와) 검은 칠을 한 화살인 노시(旅矢) 1,000대, 검은 기장에 향초를 더해 빛은 향기로운 술인 秬鬯酒 1통, 경호원 300명을 내리시었다.⁷⁵⁾

73) <冊魏公九錫文>: 君龍驤虎視, 旁眺八維, 掩討逆節, 折衝四海, 是用錫君彤弓一, 彤矢百, 旅弓十, 旅矢千。

74) 《尚書·文侯之命》: 用賚爾秬鬯一卣; 彤弓一, 彤矢百; 盧弓一, 盧矢百; 馬四匹。

75) 《左傳·僖公二十八年》: 王命尹氏及王子虎、內史叔興父策命晉侯爲侯伯, 賜之大輅之服、戎輅之服、彤弓一、彤矢百、旅弓十、旅矢千、秬鬯一卣、虎賁三百人。

《禮記·王制》편에는 주나라 왕이 내려주는 활과 화살이 갖는 상징적 의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禮記·王制》: “제후는 주나라 왕이 내려주는 활과 화살을 받은 뒤에라야 (다른 제후를) 정벌할 수 있으며, 긴 머리 도끼(斧)와 넓적 머리 도끼(鉞)를 받은 뒤에라야 (죄를 지은 다른 제후를) 죽일 수 있다.”⁷⁶⁾

제후가 周나라 왕의 명령을 받아 먼 길의 정벌을 나갈 때, 주나라 왕은 활과 화살, 긴 머리 도끼와 넓적 머리 도끼를 내려주어서, 주나라 왕이 군대 출정 명령을 내렸음을 나타내는 증거로 삼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4.5 【노궁(旅弓)】

① 《삼국연의》에서의 묘사

61회: 조조가 헌제로부터 받는 아홉 가지 권리를 나타내는 상징적 물건인 九錫 가운데 하나인 궁시(弓矢)에 관한 풀이에 1번 나온다. “검은 활인 노시(旅弓) 10개와 검은 화살인 노시(旅矢) 1,000대. 노(旅)은 검은 색이다.”⁷⁷⁾

② 정의

《한어대사전》과 《병기사전》 모두 “검은 칠을 한 활.”로 정의하고 있다.

③ 동궁(彤弓)과 노궁(旅弓)의 비교

위에서 언급한 <冊魏公九錫文>의 “붉은 활인 동궁(彤弓) 1개와 붉은 화살인 동시(彤矢) 100대와, 검은 활인 노궁(旅弓) 10개와 검은 화살인 노시(旅矢) 1,000대(彤弓一, 彤矢百, 旅弓十, 旅矢千.)”라는 내용에 근거해 볼 때, 저마다 활 하나에 화살 100대가 짝하고 있으며, 붉은 활인 동궁(彤弓)이 검은 활인 노궁(旅弓)보다 높은 등급의 권력을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荀子·大略》의 “제후는 붉은색 활인 동궁(彤弓)을 쓰며, 대부는 검

76) 《禮記·王制》: 諸侯賜弓矢, 然後征; 賜斧鉞, 然後殺.

77) 61회 弓矢에 관한 풀이: 旅弓十, 旅矢千. 旅, 黑色也.

은 색 활인 흑궁(黑弓)을 쏜다.”⁷⁸⁾는 표현에 근거할 때, 동궁(彤弓)은 魏公에 오르는 曹操의 등급에 맞는 것이고, 노궁(旅弓)은 아마도 조조가 魏公으로서 밑에 거느리는 大夫를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과 그들에게 출정을 명령할 수 있는 출정명령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2.5 그 밖의 활

2.5.1 【작화궁(鵲畫弓)】

① 《삼국연의》의 묘사

모두 1번 나온다.

5회: 孫堅은 “너무나 힘을 쥐서 활을 당겼기 때문에 鵲畫弓이 ‘뚜둑’하며 부러지고 말았다.”⁷⁹⁾

② 정의

《漢語大詞典》에는 ‘까치 형상을 꾸며 그려 넣은 활(飾以鵲形的弓。)’이라고 정의하였다. 《병기사전》에는 “꽃무늬로 꾸민 활(彩飾的弓。)”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鵲畫弓’은 같은 발음이 나는 ‘작화궁(雀樺弓)’의 잘못이 아닌지 모르겠다. 작화궁(雀樺弓)은 검붉은 색(雀色)의 자작나무(樺木)로 만든 활이다. 《明會典·工部十二·軍器軍裝一》의 기록에 “桑木稍黑漆弓、雀樺硬弓、雀樺弓”이 있다. 작색(雀色)은 검붉은 색을 뜻한다.

③ 《후한서》와 《삼국지》의 기록

《후한서》와 《삼국지》에는 ‘鵲畫弓’이란 말이 없다.

78) 《荀子·大略》: 諸侯彤弓, 大夫黑弓。

79) 5회: (孫堅)……因用力太猛, 拽折了鵲畫弓。

2.5.2 【와궁(窩弓)】

窩弓은, 적군이나 사냥감이窩弓의 격발장치에 연결된 줄을 무심코 건드리게 되면 자동으로 노살(弩矢)이 날아가게 만든 기계장치인 쐐이다. 따라서窩弓에 대해서는 이후의 쐐에 관한 논문에서 다룰 것을 기약한다.

2.6 그밖에

《삼국연의》에 나오는 여러 병기들 가운데, 활은 독특하게도 신비스러움을 간직한 병기로 묘사되고 있다. 그 신비스러움은 占과 모종의 관련이 있다. 활과 점이 관련된 묘사는 두 곳에서 나온다. 하나는 점을 쳐서 활을 찾아내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角弓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겠다. 다른 하나는 활로 점을 치는 것이다.

2.6.1 활 점

《삼국연의》 16회에는 활로 점을 치는 내용이 나온다. 袁術이 紀靈을 시켜 小沛에 주둔하고 있던 劉備를 공격하게 하자, 여포가 이 둘의 싸움을 말리며 유비를 도와주는 이야기가 있다.

《삼국연의》 16회: 여포가 말하였다. “내가 그대 둘이 서로 싸우지 말라고 일렸는데, 이는 모두 하늘의 명령에 달려 있는 것이외다.” 여포는 곁에 있던 시종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이 꽃무늬가 새겨진 戟을 轅門 밖으로 멀리멀리 가져가서 땅에 꽂아서 세워놓아라.” 그러더니 기령과 유비를 되돌아보며 말하였다. “轅門에서 이곳 중간까지는 150보(217.8m)⁸⁰이외다. 내가 만약 화살을 쏘아 극의 작은 곁가

80) 후한말 삼국시기 1尺=24.2cm, 1步=6尺=145.2cm. 따라서 150步=21,780cm=217.8m. 올림픽 양궁경기에서 사선에서 표적까지의 거리가 70m이므로, 여포는 올림픽 표준사정 거리 3배 거리의 표적을 정확하게 맞힌 것이 된다. 이 거리에 관한 묘사는 소설적 허구로서, 《三國志·張邈傳》에는 나오지 않는다.

지를 쏘아 맞힌다면 두 분은 군사를 거두시구려. 만약 쏘아 맞히지 못한다면, 그대들은 저마다 자기 영채로 돌아가서 싸울 준비나 하시구려.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내 온 힘을 다하여 그를 막아내리다.”…… 화살은 쉬익 날아가더니 꽃무늬 극의 작은 곁가지를 정확하게 맞히었다.…… 여포는 꽃무늬 극의 작은 곁가지를 화살로 쏘아 맞히자마자 걸걸거리며 큰소리로 웃어 제쳤다. 그리고는 활을 땅바닥에 내던지고는 기령과 현덕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하였다. “이는 하늘이 두 분에게 명령을 내리시어, 군사를 거두시라는 것이외다!”⁸¹⁾

이 이야기는 《三國志·張邈傳》의 다음 기록을 소설로 꾸민 것이다.

여포는 군영의 문을 지키고 있는 위병에게 명령을 내려 군영의 문 한가운데에서 戟을 하나 들고 있도록 시켰다. 여포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화살을 쏘아 극의 작은 가지를 맞히는 것을 보시구려. 한 발에 맞히면 여러분은 군대를 물러 돌아가야 하고, 맞히지 못하면 남아서 싸워도 좋소.” 여포는 활을 들어 戟을 쏘아, 戟의 작은 가지를 정확하게 맞히었다. 여러 장수들은 모두 놀라서 말했다 “장군께서는 참으로 하늘의 위세를 갖추셨소이다.”⁸²⁾ 이튿날, 다시 즐겁게 모여서 잔치를 벌인 다음에 저마다 싸움을 그만두었다.⁸³⁾

《三國演義》에서 呂布가 ‘轅門에서 戟을 쏘아 맞추다’는 이야기는 바로 《삼국지·장막전》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활로 ‘하늘의 뜻’을 점치는 것이다.

2.6.2 활로 오해할 수 있는 어휘

그밖에도 활이 아니지만 활(弓)로 오해할 수 있는 어휘 2종이 있다.

81) 《삼국연의》 16회: 布曰: “我勸你兩家不要廝殺, 盡在天命。” 令左右接過畫戟, 去轅門外遠遠插定。乃回顧紀靈、玄德曰: “轅門離中軍一百五十步。吾若射一箭中戟小枝, 你兩家罷兵, 如射不中, 你各自回營, 安排廝殺。有不從吾言者, 并力拒之。”…… 一箭正中畫戟小枝。……當下呂布射中畫戟小枝, 呵呵大笑, 擲弓於地, 執紀靈、玄德之手曰: “此天令你兩家罷兵也!”

82) 《三國志》: (呂)布舉弓射戟, 正中小支。諸將皆驚, 言“將軍天威也!”

83) 《三國志·張邈傳》: (呂)布令門候于營門中舉一隻戟, 布言: “諸君觀布射戟小支, 一發中者諸君當解去, 不中可留決鬥。” 布舉弓射戟, 正中小支。諸將皆驚, 言“將軍天威也!” 明日復歡會, 然後各罷。

2.6.2.1 【단궁(檀弓)】

① 《삼국연의》에서의 묘사

48회 毛宗崗 回評: (적벽대전을 앞두고) 조조가 삭(槩)을 휘두르며 노래를 부를 때는, 바로 그가 곧 뜻을 이루게 되어 한껏 마음이 부풀었을 때였다. 그러나 그는 노래하기를, “근심을 잊기 어렵노라”, 또 “무엇으로 근심을 잊을까나” 또 “근심은 가슴속으로부터 솟아나와”라고 하였다. 어찌하여 마땅히 기뻐해야 할 때에 근심이 밀려오는 것인가? 대저 즐거움이라는 것 안에는 근심이 몰래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禮記·檀弓》에 이르기를, “사람은 기쁘면 도취하게 된다. 도취하게 되면 읊조리게 된다. 읊조리다보면 춤을 추게 된다. 춤을 추다 보면 울적해진다. 울적해지게 되면 슬픔이 밀려오게 된다. 슬픔이 밀려보면 탄식을 하게 된다.”라고 하였다.⁸⁴⁾

48회 毛宗崗의 회평은 조조의 <短歌行>을 《禮記·檀弓》의 구절을 가지고 소설가식으로 풀이를 단 글이다.⁸⁵⁾

② 정의

檀弓은 활의 한 종류로서, 박달나무로 만든 활을 뜻한다.

《後漢書·東夷傳·濊》: 낙랑의 단궁은 바로 濊 땅에서 난다.⁸⁶⁾

그러나 48회 毛宗崗 回評에서의 檀弓은 활이 아니다. 《禮記集解》에, “鄭氏가 이르기를, ‘이 편의 이름을 檀弓이라고 정한 것은 그가 禮에 뛰어났기 때문에, 그의 성과 이름을 밝혀 그를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다. 檀이 성이고 弓이 이름이다.(鄭氏曰: ‘名曰檀弓者, 以其善於禮, 故著姓名以顯之. 檀, 姓; 弓, 名.’)”

84) 48회 毛宗崗 回評: 曹操當舞槩作歌之時, 正志得意滿之時也. 而其歌乃曰“憂思難忘”, 又曰“何以解憂”, 又曰“憂從中來”, 何其宜樂而憂耶? 蓋樂者憂之所伏. 《檀弓》之言曰: “樂斯陶, 陶斯詠, 詠斯舞, 舞斯愠, 愠斯戚, 戚斯嘆矣.”

85) 48회 毛宗崗 회평에서의 <檀弓>의 내용은 본디 《禮記·檀弓》과는 약간의 출입이 있다. 《禮記·檀弓》: 人喜則斯陶, 陶斯詠, 詠斯猶, 猶斯舞, 舞斯愠, 愠斯戚, 戚斯歎, 歎斯辟, 辟斯踊矣.

86) 《後漢書·東夷傳·濊》: 樂浪檀弓出其地.

라고 하였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檀弓이란 《禮記》의 편명이며, 또한 사람 이름이지, 활의 이름은 아니다.

2.6.2.2 【무호(螯弧)】

① 《삼국연의》에서의 묘사

67회 毛宗崗의 短評: “감녕이 손에 쇠사슬을 들고서, (쏟아지는) 화살과 돌을 무릅쓰고 성위로 올랐다.(甘寧手執鐵練, 冒矢石而上.)”는 《삼국연의》의 원문에 대하여, 毛宗崗은 다음과 같은 短評을 달아 말하였다. “감녕은 ‘무호(螯弧)를 뽑아들고 앞을 다투어 맨 먼저 성위에 올랐다’라고 일컬을 만하다.(甘寧可謂“拔螯弧以先登”)

② 정의

위의 “拔螯弧以先登”의 출전은 《左傳·隱公十一年》의 다음과 같은 기록이다.

《春秋左傳·隱公十一年》: 穎考叔이 鄭나라 莊公 깃발인 무호(螯弧)⁸⁷⁾를 들고서 앞을 다투어 먼저 성위로 올라갔는데, 子都가 그 밑에서 활로 그를 쏘자, 穎考叔은 굴러 떨어져 죽었다. (鄭나라 大夫인) 瑕叔盈이 다시 그 무호(螯弧)를 들고서 성위로 올라가, 무호(螯弧)를 사방으로 휘두르며 소리쳤다. “군주께서 올라오셨다!” 이에 鄭나라 군대가 모두 성에 올랐다.⁸⁸⁾

67회 毛宗崗의 短評에는 무호(螯弧)라고 되어 있지만, 《春秋左傳·隱公十一年》에는 무호(螯弧)라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비슷한 발음을 가져다가 빌려 쓴 것이라고 여겨지기는 하지만, 무호(螯弧)가 불필요하게 ‘투구(螯)와 활(弧)’로 오해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무호(螯弧)로 고치는 것이 옳을 듯싶다. 무호(螯弧)에 대하여, 孔穎達은 다음과 같은 疏를 달았다.

87) 《春秋左傳正義》에 따르면, “무는 망과 후의 반절 음인 ‘무’이다.(螯, 亡侯反.)”라고 하였다.

88) 《春秋左傳·隱公十一年》: 穎考叔取鄭伯之旗螯弧以先登, 子都自下射之, 顛。瑕叔盈又以螯弧登, 周麾而呼曰: “君登矣!” 鄭師畢登。

孔穎達 疏: 《周禮·春官·司常》에 ‘제후는 기(旂)를 세우고, 少師·少傅·少保인 孤卿은 전(旛)을 세운다.’라고 하였다. 《左傳》의 기록에 따르면, 鄭나라에는 무호(螭弧)가 있고, 齊나라에는 영고비(靈姑鉦)가 있는데, 이 모두는 제후의 기(旗)이다. …… 이 이름은 당시 춘추시기에 지어진 것으로, 그 뜻은 알 수가 없다.⁸⁹⁾

따라서 ‘무호(螭弧)’는 춘추시기 제후의 旗 가운데 하나이지, 활이 아님을 알 수 있다.

3. 결론

본고는 《삼국연의》에 나오는 20종류의 활들을 고찰하여 보았다. 그 가운데 《후한서》와 《삼국지》의 기록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활들은 궁(弓)·양궁(良弓)·각궁(角弓)·동궁(彤弓)·노궁(旅弓) 5종류뿐이었다. 나머지는 소설가가 후대의 활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허구적으로 꾸며 지어낸 활들이었다. 그러나 일부 인물과 그들이 사용하는 활은 매우 생동적으로 묘사되어 있었다. 천자보조궁(天子寶雕弓)을 헌제에게 돌려주지 않고 건방을 떠는 曹操, 2석 지궁(二石之弓)을 쏘는 黃忠과 양석철태궁(兩石鐵胎弓)을 쏘는 王雙, 그리고 작화궁(鵠畫弓)을 당기다가 부러뜨리는 孫堅의 형상은 인물의 성격을 매우 성공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 그리고 활을 이용하는 전투장면 묘사는 실제 전술에 비교적 가깝게 묘사되어 있음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황충이 2石짜리 활을 당길 수 있다고 했다가, 3石짜리 활을 당길 수 있다고 했다가 하는 일관되지 못한 묘사도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밖에 《삼국연의》에 나오는 활들은 수렵용·전투용 이외에도, 의장용이나 정벌의 권위를 드러내 주기도 하고, 특

89) 孔穎達 疏: 《周禮》: ‘諸侯建旂, 孤卿建旛。’而《左傳》鄭有螭弧, 齊有靈姑鉦, 皆諸侯之旗也。…… 其名當時爲之, 其義不可知也。”

수하게는 활 점을 치는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고는 《삼국연의》에 나오는 활들을 처음으로 문학적·역사적·병기학적·과학적·문화적·수량적 각도에서 총체적으로 정리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 參考文獻 >

- [明] 羅貫中 著, 毛宗崗 評改, 《三國演義》,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9.
- [漢] 司馬遷 撰, 《史記》, 北京: 中華書局, 1959.
- [宋] 范曄 撰, [唐] 李賢 等注, 《後漢書》, 北京: 中華書局, 1965.
- [晉] 陳壽, 《三國志》, 北京: 中華書局, 1959.
- [元] 脫脫, 《宋史》, 北京: 中華書局, 1977.
- 盧弼 撰, 《三國志集解》,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9.
- 張舜徽 主編, 《三國志辭典》, 濟南: 山東教育出版社, 1992.
- 陸錫興 主編, 《中國古代器物大詞典—兵器·形具》,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2002.
- [明] 宋應星, 《天工開物》, 北京: 中國社會出版社, 2004.
- 楊弘, 《中國古代兵器論叢》,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7.
- 孫機 著, 《漢代物質文化資料圖說》,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8.
- 漢語大詞典編輯委員會, 《漢語大詞典》,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1994.
- 홍윤기, <《三國演義》界橋之戰의 戰術 描寫에 관한 고찰>, 《中國語文論叢》 51輯, 2011.

< 中文提要 >

本稿是從形象的、歷史的、科學的、戰術的、文化的、數理的角度, 對《三國演義》裡出現的其二十種弓進行了考察研究。其目的在於獲得對《三國演義》的更豐富的、更正確的理解。研究步驟如下: 一、從《三國演義》抽出所有弓而進行分類。二、調查《三國演義》對那些弓的描寫。三、考察那些弓是否存在於《後漢書》或《三國志》的記錄上。四、考察那

些弓的科學特性。五、考察那些弓的戰術特徵。六、考察那些弓的文化涵義。七、根據歷史記錄及考古文物資料，以現代度量衡單位顯示那些弓的張力與射程等。《三國演義》裡出現的二十種弓有如下：弓、步弓、強弓、硬弓、良弓、二石力之弓、三石之弓、鐵胎弓、兩石鐵胎弓、檠弧、馬弓、角弓、輕弓、雕弓、寶雕弓、天子寶雕弓、彤弓、旅弓、鵠畫弓、窩弓。

關鍵詞：三國演義、三國志、兵器、弓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3. 9. 30.	2013. 10. 29.	2013. 11. 25.	2013. 11. 26.	2013. 11. 30.